해외 전지훈련단 유치…강진경제 뛰게 한다

선수들 11일간 878명 체류…10억원 경제유발 효과
숙박·외식·관광 등 소비 촉진…"스포츠·관광 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해외 전지훈련을 유치해 약 1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며 스포츠마케팅의 영역을 해외로 확대하고 있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11일간 '2026 중국 푸양시 국제 전지훈련·교류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푸양시 요우이스포츠클럽을 비롯해 국내 16개 팀 등 총 17개 팀, 선수단 848명이 참가하며 중국 선수단 학부모 30명도 함께 강진에 머물렀다.

선수단과 학부모 등 총 878명은 11일간 강진에 체류하며 숙박과 외식, 관광, 전통시장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했다.

강진군이 전지훈련 활성화 연구용역에서 산정한 1인 1일 평균 소비액 10만2906원을 적용한 결과, 약 9억9400만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선수단은 청자축구장과 종합운동장에서 전지훈련과 교류경기를 진행하는 한편, 가우도와 마량놀토수산시장, 강진청자박물관, 영랑생가, 브이랜드 물놀이장, 다산초당, 백련사, 병영성, 하멜기념관 등 강진의 주요 관광지를 찾아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체험했다.

또 지역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일정을 운영해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해외 전지훈련은 국제 스포츠 교류를 넘어 강진군의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대회 운영 역량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수단과 학부모의 장기 체류는 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스포츠관광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앞으로 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양 지역 선수단이 상호 방문하는 정례 교류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진군과 중국 푸양시 요우이스포츠클럽은 매년 선수단을 상호 파견해 전지훈련과 친선경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해외 전지훈련 유치는 단순히 선수단을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숙박과 외식, 관광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스포츠 마케팅의 핵심 전략이다"며 "앞으로도 해외 스포츠단체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스포츠와 관광이 융합된 스포츠메카 강진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

강진군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11일간 '2026 중국 푸양시 국제 전지훈련·교류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푸양시 요우이스포츠클럽을 비롯해 국내 16개 팀 등 총 17개 팀, 선수단 848명이 참가하며 중국 선수단 학부모 30명도 함께 강진에 머물렀다. 사진은 중국 선수단이 전지훈련 기간 중 강진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청

이재각 진도군수, 섬 주민과 첫 만남…현장 소통 강화

주민·단체 의견 반영
"현장 중심 군정 추진"

이재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수는 최근 조도면을 방문해 지역 사회단체장 및 주민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도서지역의 주요 현안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쳤다.

이재각 군수는 조도면 지역 사회단체장들과 첫 만남을 갖고 지역의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도서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 복지, 기반 시설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맹성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갖고, 생활 속 불편 사항과 마을의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재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수는 최근 조도면을 방문해 지역 사회단체장 및 주민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도서지역의 주요 현안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펼쳤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청

주민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건의했으며, 진도군은 해결 가능한 사항부터 신속하게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톳생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최근 톳 생산 현황과 가격 변동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 가공과 유통 활성화,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톳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군수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며 "주민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서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우원식 전 국회의장, 영암서 '민주주의' 강연

혁신공감 첫 특강…지역공동체 역할 등 강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최근 영암청소년센터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초청해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첫 번째 혁신공감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은 국가 주요 정책과 사회 변화의 흐름을 군민과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3회 연속 강연의 첫 순서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강연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걸어온 역사와 오늘날 직면한 과제를 짚었다. 특히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줄여 국민이 체감하는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군민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활 속 민주주의의 의미와 주민 참여, 지역공동체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군민의 참여를 넓히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에서 실천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다.

영암군 혁신공감 특강은 앞으로 두 차례 더 이어진다. 오는 26일 국립목포대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에서 김세훈 ㈜빈센 사장이 '에너지대전환, 영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9월 8일 영암청소년센터에서는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이 '사회연대경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군민과 만난다.

박영하 영암군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특강이 민주주의를 군민의 삶과 지역의 현실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이어질 에너지대전환과 사회연대경제 특강에서도 영암의 미래를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